IB DIPLOMA PROGRAMME
PROGRAMME DU DIPLÔME DU BI
PROGRAMA DEL DIPLOMA DEL BI

M07/1/A1KOR/HP1/KOR/TZ0/XX

KOREAN A1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SUPERIOR – PRUEBA 1

Monday 14 May 2007 (morning)
Lundi 14 mai 2007 (matin)
Lunes 14 de mayo de 2007 (mañana)

2 hours / 2 heures / 2 hor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 IBO 2007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 (a)

얼굴

사람은 저마다 정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 착하고 품위 있는 얼굴의 소유자도 있고, 흉하고 험상궂은 얼굴을 가진 이도 있다.

우리는 자기의 얼굴을 선택하는 자유는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한테서 선물로 받은 얼굴이다. 재주나 체질과 마찬가지로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누구나 맑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기를 원한다. 추하고 못생긴 얼굴을 바라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톨스토이의 자서전적 작품을 읽어 보면, 젊었을 때 자기의 코가 넓적하고 보기 흉한 것을 무척 비관하고 염세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젊었을 때에는 특히 자기 얼굴의 미추에 대해서 유별한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젊은 여자일수록 더하다. 얼굴의 근본 바탕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결정되지만, 우리는 자기의 성실한 노력에 따라서 제 얼굴을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좋은 얼굴을 가져 보려고 정성껏 애를 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달라지는 법이다. 물론 한두 달의 노력으로 될 일은 결코 아니다. 적어도 10 년쯤 성의껏 애쓴다면 얼굴은 분명히 달라진다. 한 가지의 높은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써 온 사람의 얼굴에는 어딘지 범할 수 없는 위엄과 기품이 감돈다. 그것은 안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빛이다. 위대한 예술가나 탁월한 학자나 고매한 종교인의 얼굴에는 분명히 환한 빛이 있고 사람을 누르는 힘이 있다. 그것은 좋은 꽃에서 발하는 그윽한 향기와 같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일이다.

링컨은 이런 말을 하였다.

" 사람은 나이 40 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깊이 생각하고 음미해 볼 만한 말이다. 일생을 무책임하게 살아 온 사람의 얼굴에는 어딘지 무책임의 그림자가 서린다. 진실하게 살려고 한결같이 노력한 사람의 얼굴에는 분명히 진실의 표정이 깃들인다. 화류계에서 오랫동안 윤락한 인생을 산 여성들의 얼굴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답게 화장을 해도 요(妖)와 속(俗)과 비(卑)의 표정을 감출 수가 없다. 물론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긴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얼굴의 표정이 그렇게 굳어지고 만 것이다.

사람이 마음 속에 악의를 품고 있으면 벌써 얼굴에 그것이 새겨진다. 우리의 마음이 질투의 감정에 휩쓸릴 때 얼굴 근육이 질투의 표정으로 이지러진다. 악의와 질투의 감정과 표정을 한두 번이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을 가진다면 스스로 얼굴에 보기 흉한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얼굴을 매일같이 조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내 얼굴 그만큼 진실해지는 것이요, 거짓된 마음을 가지면 내 얼굴이 그만큼 흉한 얼굴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과의 법칙에 속한다.

(안병욱 <행복의 메타포>)

1. (b)

저녁 나절

너를 잊고 싶다
너와 상관없던 하늘과
너와 상관없던 꽃의
무심하고 텅 빈 여백 속에
저녁 나절 고개 수그리고 걸어 들어가
내 마음대로 팔을 휘젓던 그 자유를
나는 다시 찾고 싶다
그토록 재빠르게
너는 나의 하늘과 꽃으로 스미었는가
어디에도 여백이 없다
아늑한 저녁 나절이 저 혼자 스러졌다
너를 잊고 싶다
내 마음대로 팔을 휘저으며
보무당당 홀로 걷고 싶다.

(한영옥 [문학예술])